

“유사한 중복사업 난립 경계하고 골목상권 육성사업 차별화 하라”

서울시의회, 구획화·육성지원
내년 5억, 5년간 총 132억 투입
“골목상권 조직화, 성장기반 마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의회가 골목상권 육성 지원 관련 유사 중복 사업이 많으며 서울시에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5억원을 들여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구획화·육성 지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기획한 사업으로, 이름 없는 골목상권에 명칭을 부여하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통시장 특별법상 인정(등록)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해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흩어진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구획화를 바탕으로 신규 조직화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자치구별 골목상권 1개

소이며, 사업 수행 주체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구획화·조직화를 돕고 상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 간담회, 우수 상권 벤치마킹 등으로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하고, 브랜딩 마케팅 교육과 실습, 상인 조직 운영, 상권 발전 방안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5년 2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 골목상권 구획화·조직화 지원 등으로 5억원만을 편성했다.

동 사업과 비슷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의 경우 유사 상권 사업이 이미 시행된 바 있고, 사업 추진의 한계에 봉착해 이번 예산안에는 빠졌다.

시의회는 “금번 예산안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과 비슷한 사업이 존재해 차별화된 전략과 특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시의 2025년 예산안에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83억2800만원) 사업이 포함됐다.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이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과 비슷하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로 영세 상인의 고통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골목상권 조직화와 상인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유사 중복 사업의 난립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며 “로컬 브랜드 사업과 같이 유사 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거나 차별화를 꾀하는 등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인 ‘지평의 공원’. /서울시

성수 뚝개공원 공모전 당선작 20개 선정

서울시, 지평의 공원 등 3개 최우수상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뚝개공원 및 수변공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2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의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둘레길과 강변북로 상부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뚝개공원과 수변을 활용한 수상문화시설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5일~10월 11일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지평의 공원 ▲성수 온클라우드 나인(SEONGSU ON CLO

UDSNINE) ▲웨이브 오브 한강(Wave of Hangang) 3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우수상(3개), 장려상(4개), 가작(10개)을 포함해 총 20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응모작들이 창의성 면에서는 우수했으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대상 수상작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달 수상자에게 상금과 서울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에는 3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 가작에는 30만원의 상금을 준다. /김현정 기자

폐교대학에 장려금?... ‘떡튀 우려’ 비판

7개 교수·대학 단체, 입장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폐교 가속화 결과로 나타날 것”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대학에 ‘해산 장려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추진하자 교수·대학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재단의 ‘떡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교수·대학 단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입법이라고 하지만, 입법 시 향후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만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사

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입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폐교대학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두고 이날 교수·대학 단체들은 “이는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교육용 자산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조성된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교육자산에 대한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국회 입법 논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산 장려금 지급은 사학재단의 이른바 ‘떡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은) 교육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해산장려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할 수 있다”라며 “자칫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퇴

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해당 법안에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 등 구성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없어 폐교위기에 내몰린 각 법인과 대학이 실제 잔여재산 처분 등을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라며 “기존 폐교대학의 경우에도 실제 청산을 통해 잔여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가진 대학이 많지 않았고, 폐교 이전에 비해 폐교 이후의 대학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폐교 전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실장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는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대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수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내달 16일 ‘경기여성 국제포럼’ 개최

수원컨벤션센터서 정책방향 모색

경기도가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정책 국제행사로, 여성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만들고 경기도가 추진할 여성정책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는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 17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

구 대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정하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양성평등한 정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11월 26일(화) 음력 : 10월 26일

수도권 날씨 9~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9, 동두천 8/10, 가평 7/9, 파주 7/9, 서울 9/10, 양평 8/9, 인천 9/10, 수원 9/10, 용인 9/10, 평택 9/10, 백령도 7/7

해돋이 / 07:23 | 해질 / 17: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러, 입대하면 빛 없애준다...최대 1억 3000만원 탕감
▲우루과이 대통령에 오르시 당선...5년 만에 ‘중도우파→좌파’ /사진 뉴스스

▲다이시바 지지율, 한달새 46%→31% 급락...‘퇴진위기’ 근접
▲美의회에 ‘친가상화페’ 의원 300명 포진



▲“트랜스젠더 군인 싹 다 추방”...트럼프, 취임 첫날 1.5만명 내쫓는다 /사진 뉴스스
▲영국도 관광세 도입 움직임...스코틀랜드·웨일스 중심 확산